





[창 4:1-15]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었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은즉 내가 주의 낫을 밟으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 아벨의 순교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 사건은 단지 아담 가문에 있었던 단 비극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홍수 이전의 옛 세계 전체를 요약하는 상징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히 형제 간의 우애를 가르칠 목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시와 일반 역사 속에서 아담 이후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는 이미 인류가 온 세상에 번성하여, 각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였습니다. 심지어 노아는 1년 동안 물 위에서 살 수 있는 배를 지을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에 사회와 문화를 이룬 것입니다. 노아에 이르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니다.

이처럼 장구한 시간 속에서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기 가운데 한 사건만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아벨의 순교 사건은 인류 타락 이후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상징적인 표지판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뱀의 자손’과 ‘여인의 후손’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이하는 ‘여인의 후손’들의 삶의 규범과 법칙 또한 말해줍니다.

#### 일반은총과 구속은총의 구별이 의미하는 것

특히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타락한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일반은총과 구속은총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구분되는 은총은 각기 구별된 방식과 목적으로 운용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사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교회와 사회 자체의 구분을 철파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점점 더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축면에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발전하는 기술과 문화에 지나친 기대를 두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조차 세상 문명으로부터 다양한 즐거움과 유희를 경험하며 그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구속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세상의 일반은총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구속 은총과 일반 은총을 철저히 구별했던 이유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도 분명 일반 은총의 기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일반은총의 한계를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구속은총으로 달려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일반은총을 말하였습니다. 일반은총을 무시하지 않지만, 결코 일반 은총에 소망을 두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 선악과를 먹은 아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성경은 이들이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져 서로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가릴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대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때 어떤 위

독한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사과를 먹은 백설공주와 같이 깨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벗은 몸을 보는 것을 부끄러워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각하게 느껴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저 옷을 만들어 가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뒤에도,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도, 이 것처럼 앞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부끄러움 외에 문제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없다면 자신들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느낀 바와 실재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오셔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밝히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현 시대의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아담이 그랬었던 것처럼, 인간이 범죄하여 잃어버리게 된 것, 곧 하나님에 관한 무엇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술과 문명의 진보로도 결코 이를 수 없는 영혼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국가의 상호보완관계**  
바로 이러한 타락한 인류의 정신 가운데 아벨이 순교한 것입니다. 아벨의 순교에는 세상 나라를 향한 경고가 담겨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도 모른척하는 가인에게 대하여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피는 온 세상을 향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괜찮은 세상인지 묻고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아담의 가정은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같은 자신들을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제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되물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상은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이었고, 가인은 하나님께 명령되지 행하는 교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들의 영적인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회 안에서는 차이를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때 이 땅으로부터 아벨의 피가 부르짖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을 갖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서 약속하신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처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피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 땅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은총은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날 허락된 특별식사와 같습니다. 먹은 후에 죽게 될 특식입니다. 사형수 중에 이를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은총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좋아할 만하고, 우리가 즐길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은총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도 가정은 세워졌습니다. 가정들이 연합하여, 부족과 국가를 이룹니다. 그런데 국가가 사람을 통치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무엇일까요?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가정 안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즉시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형벌기관 확립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곧 국가를 통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징벌토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국가 기관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아벨과 같이 억울한 사람들의 피의 호소를 듣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세상은 괜찮은 것입니까? 세상 국가가 가지는 징벌적 기능들은 곧 이 땅을 이루는 관계의 근간인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 사회적 책무와 유토피아적 환상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사회적 책무를 조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적 책무, 혹은 직업을 소명이라고 부르며 존중합니다. 맡겨진 일을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여기며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이 세상을 완벽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망상에서 되돌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생존마저 어려워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됩니다. 세상이 그들 스스로 진정한 행복을 맛본다는 것은 코끼리가 하늘을 날고, 고래가 나무에 짐을 짓고 살아가기를 버리는 것 만큼 허황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군복무를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평화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국가가 전쟁을 제어할 힘을 갖지 못한다면, 이 땅에 평화가 아닌 패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계역적 영역에 대한 침범**  
성도들은 일반 사회의 기관의 필요성을 부인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일반 사회 기관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신앙 기관의 존재 가치를 국가가 훼손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신앙 기관이라는 이유로 공공 사회 질서를 위해 행하는는 국가 권력에 맞서거나 통치를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부터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 증거입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직 하루 중일 교회에만 있고, 예배당에 꿇어앉자 기도만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려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자아가 허락되었으니 굳이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역시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익한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정치 기관이나, 복지 기관, 교육 기관, 의료 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존재 가치는 교회의 교회됨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갖고 있는 죄사함과 거룩함의 능력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복음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힘써 수고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참교추 경모임
<p><b>존 페스코의 『삼위일체와 구속언약』</b></p>
<p>3부 3장 예정</p>

**개혁주의 전통과 형이상학**  
전통 교리들과 그 교리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성경 본문들을 자세히 살펴 볼 때 우리는 바르트가 개혁주의 정통 신학이 형이상학적인 사색이라고 왜곡하는 모든 주장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 형이상학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결코 사색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9장과 출애굽기 33장 19b절은 선택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술들은 존재론적이며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바르트가 말한 바와 같이 사색에 의한 도출이 아닌 것입니다. 계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유기 행위를 통해 그 분의 공화와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유기된 자들은 악인에 대한 여호와와 공의로온 심판의 영광을 보여 주며, 선택의 대상에게는 하나님 이 베푸시는 은혜의 깊이를 부각시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르트와 형이상학**  
개혁주의 정통이 말하는 예정은 분명히 계시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바르트는 어떨까요? 그는 정말로 그가 주장하는대로 구체적인 후기 형이상학적인 예정 교리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저자인 페스코는 바르트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선택받고 버림받은 인간인 동시에 선택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을 부당한 결론으로 봅니다. 바르트의 예정은 계시에 근거하여 석의에

참교추 경모임
<p><b>존 페스코의 『삼위일체와 구속언약』</b></p>
<p>3부 3장 예정</p>

다른 결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개혁신학을 비판하던 그대 로 사색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에밀 브루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이 그런 교리(바르트가 주장하는 예정 교리)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브루너는 로고스가 항상 “성육신하실 로고스”라는 바르트의 전제를 거부합니다. 그런 전제는 영원이 시간을 삼켜 버리게 하며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구분**  
로고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육체를 입지 않으신 로고스 - 성자께서 창조하거나 창조하지 않으실, 구속하거나 구속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계심을 강조한 용어. 로고스의 작성의 임의성을 강조하기 위한 구분
- 성육신 하실 로고스 - 성자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의 구속 언약 가운데서 성육신을 의도하심과 성자의 자원하는 의지를 강조하는 용어
- 성육신 하신 로고스 - 성자께서 마침내 언약에 따라 세상 에 사람이 되신사건(Event)이후를 말하는 용어

바르트는 로고스가 항상 “성육신하실 로고스”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육체를 입지 않으신 로고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자께서 가지고 계신 창조와 구속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육신하실 로고스”를 마치 헤겔의 주장과 같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르트의 이중예정**  
바르트는 모세를 말할 때 그가 하나님의 “긍정”을, 그의 대적



소식지 전체에 대한 구독은 참고추 홈페이지(www.fortruechurch.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로마 대화재와 박해

로마 대화재는 지옥을 연상케 하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참혹한 사건이었다. 이 대화재는 팔라티누스 언덕 근처의 원형경기장 남동쪽 끝에 자리잡은 목조 상점가에서 발생했다.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번진 불길의 소방수들과 군인들의 진화 노력에도 아랑곳없이 일곱 밤과 여섯 낮을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다. 사흘 동안 로마 시의 다른 구역들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피해액을 산정할 수조차 없는 대참화였다.

로마 시를 구분하는 열네 구역 중 참화를 면한 구역은 네 곳뿐이었다. 피해 지역 중 원형경기장에서 에스퀼린 언덕에 이르는 도심을 포함한 세 구역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괴되었다. 나머지 일곱 구역도 각기 다른 정도로 파괴되어, 공화정과 제정 시대에 건립된 신전들과 황제들의 기념 건물들, 수 세기 동안 수집한 그리스의 독창적인 예술품들이 먼지와 재로 변했다. 불길 속에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함께 죽었고, 세계의 메트로폴리스가 수백 만의 조문객이 운집하여 돌도 없는 보물들을 잃은 것을 애도하는 묘지가 되어 버렸다.

대화재의 원인은 신비에 싸여 있다. 항간에는 네로가 불을 지르게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검붉게 타오르는 트로이의 장관을 구경하고 싶어서, 로마

##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

이 책의 저자인 코튼 매더는 1683년부터 1728년까지 뉴잉글랜드 보스턴 제2교회의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는 신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과학, 그리고 의학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으며 뉴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에서도 탁월한 학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400권 이상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런 그가 아이들의 회심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들에 관하여서 가지는 잘못된 선입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아이들은 어딘가 회심하기에 부족하게 여기는 풍토입니다. 회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면서도 그들을 한 영혼으로 대하지 않는 분위기 말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모두 과정을 철저히 배제한 회심 이야기들입니다.

필립사트 교회사 전집 '사도적 기독교' 307-311p를 축소 발행한 것입니다.

시를 더욱 웅장하게 건축하고 싶은 아람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도시를 네로폴리스(Neropolis)라 부르고 싶어서 그 짓을 했다는 것이다.

네로는 방화의 의혹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동시에 자신의 악마적 잔인성을 새로 향유하기 위해서, 당시에 미움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경찰과 민중은 두려운 참화로 조성된 혼돈에 휩쓸려 죄의 중상 모략이라도 믿고 희생양을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흥분한 군중이란 생각하기 위해 멈추지 않으며, 하나가 되어 미쳐 날뛰기 십상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자행했다는 이런 근거 없는 고소를 통해 로마가 이전이 나 이후에 본격이 없는 피의 향연이 시작되었다.

‘허다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더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아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형벌을 조롱하는 뜻이 담긴 듯하다 더러는 원형경기장에서 들짐승의 가죽을 둘러싼 채 미친 개들에게 찢겼다. 그리스도인 남녀들이 몸에 콜타르나 기름이나 송진을 덮여쓰고 소나무 기둥에 못박힌 채 점화되어 훗날처럼 타오르는 동안 군중들은 여흥을 즐겼다. 그동안 네로는 환상적인 복장을 하고서 경매에 참여하여 전차기수로서의 기량을 자랑했다.

코튼 매더, 제임스 제인웨이 / 지평서원 / ISBN 9788986681468

이 책은 결코 어떤 과장이나 성공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놀라게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며, 깊은 은혜를 누리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기만 해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죄의에 신음과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부모들, 그리고 교회사역자들과 교사들 모두에게 이 책은 유익할 것입니다. 회심을 위한 양육과 가르침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의 회심을 위해 늘 고민해 오던 자들에게 회보(喜報)가 될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의 영혼을 관통하지 않는 피상적인 교육방식을 버리고 어린 자녀들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일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